

한 돈 리포트

2024. 10.
Vol. 12.

1. [조사연구] 한돈과 수입돈육 비교 및 국산 삼겹살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2
2. [동향] 국내외 돼지 및 돼지고기 수급 동향 9
- <세계 수급 동향> 2025년 세계 돼지 수급 전망
3. [전망] 2024년 11월 한돈팜스 수급전망 보고서 20
4. [정책제안] 기후변화에 따른 양돈장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제안 22
5. [해외동향] 글로벌 돼지 이슈 24

한 돈 미 래 연 구 소

한돈과 수입돈육 비교 및 국산 삼겹살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 연구내용 요약 》

□ 한돈과 수입돈육 비교

○ 관능평가 결과

- 한돈 삼겹살이 식감, 육즙, 지방 함량, 연도, 냄새 부분에서 유의미하게 수입산보다 우수하였음(총 9개 항목 중 6항목)

○ 원산지별 가격별 구매 의향

- 소매점과 식당에서 한돈의 구매 의향 결과, 모든 가격대에서 한돈의 구매 의향이 수입산에 비해서 높았음
- 수입산 대비 한돈 삼겹살 구매 시 더 많은 지불의향 있음 48%
- 추가 지불 의향 정도 평균 13.7%

○ 한돈과 수입산 삼겹살 차이

- 한돈과 수입산 삼겹살이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1순위 가격(73.9%), 2순위 신선도(62.8%), 3순위 맛(58.9%) 순서로 차이 있다고 응답함

○ 원산지별 삼겹살 유통시간

- 도축부터 소비자 판매까지 한돈 삼겹살의 경우 평균 10.3일, 수입산 삼겹살의 경우 평균 48.9일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

□ 국산 삼겹살 경쟁력 강화 방안

- 가격 경쟁력에서 한돈이 다소 열세이기 때문에, 수입산 냉장 삼겹살이 한돈 삼겹살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음
- 한돈이 수입산보다 유통 일수가 훨씬 짧아 소비자들은 수입산보다 더욱 신선한 한돈 삼겹살을 먹을 수 있지만, 보관 및 물류 기술의 발달로 수입이 냉장 상태로 유통되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한돈의 장점이 상쇄될 수 있음
 - 도축부터 소비자 판매까지 평균 국내산 10.3일, 수입산 48.9일 소요
- 삼겹살 지방에 대한 오해를 과학적인 근거로 인식개선 필요
- 적은 가구원수의 가정에서 조리과 보관이 편리하도록 먹기 좋은 형태로 손질하여 포장단위를 작게 하거나 간편식 형태로 유통 필요
- 편의점이나 온라인 유통에 입점을 늘릴 필요가 있음
- 한돈은 가격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고급화 및 차별화된 장점 부각이 절실함
- 한돈의 브랜드별로 품질 관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돈 브랜드 제품이 수입산에 비해 소비 명분이 적어,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강구 필요

1

연구목적

- 본 조사는 삼겹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산 삼겹살과 수입산 삼겹살을 비교하는 관능평가를 진행하여 최근 유통되는 수입돈육 대비 한돈의 품질 우수성을 규명하고 수입돈육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됨

- 또한, 소비자 대상 삼겹살 소비 행태 및 향후 수요들을 파악하고, 유통·판매업체 대상으로도 국내산과 수입산 삼겹살 유통의 특징들을 살펴, 향후 한돈 소비 확산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2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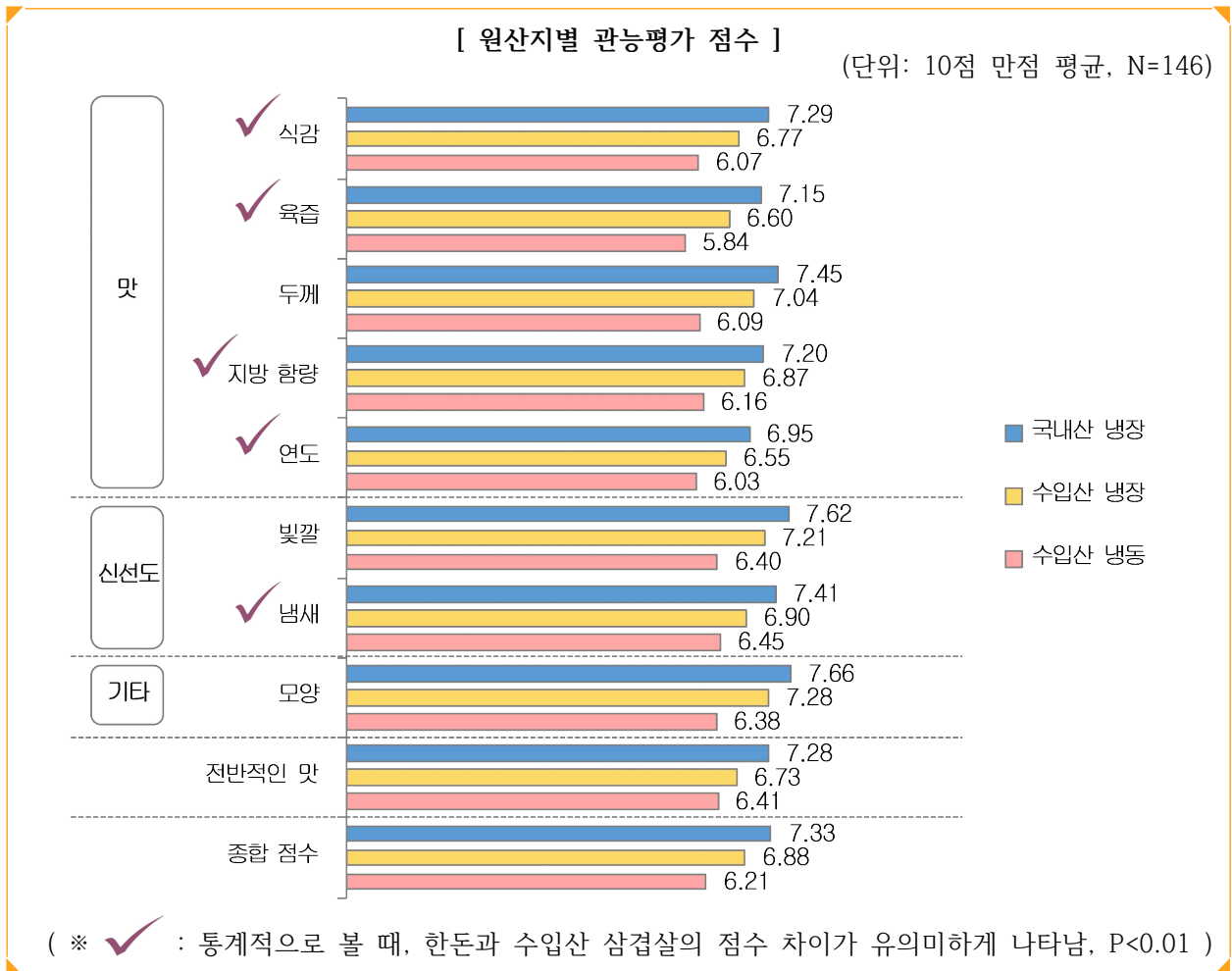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능평가 : 수도권 거주 삼겹살 소비자 - 유통·판매업체 조사 : 전국 삼겹살 유통판매업체 - 소비자 조사 : 전국 삼겹살 소비자
표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능평가 : 146명 - 유통·판매업체 조사 : 100명 - 소비자 조사 : 1,000명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능평가 : Gang survey - 유통·판매업체 조사 : 개별면접조사 - 소비자 조사 : 온라인 패널조사

3 연구결과

1. 원산지별 관능평가 주요 결과

- 원산지별 관능평가 결과, 종합 점수는 한돈 냉장 7.33점, 수입산 냉장 6.88점, 수입산 냉동 6.21점으로 한돈 냉장이 긍정적이었으며, 한돈이 수입산 냉장/냉동에 비해 식감, 육즙, 냄새에서 특히 우수하였고, 지방 함량과 연도는 한돈이 우수하나 수입산 냉장과 격차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격대별로 소매점과 식당에서 한돈의 구매 의향을 살펴본 결과, 모든 가격대에서 한돈의 구매 의향이 수입산 냉장/냉동에 비해서 더 높았으며, 대체로 가격이 상승할수록 돈육 구입 의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돈육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한돈은 구입 의향이 있는 반면, 수입산은 구입 의향이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99% 신뢰수준

2. 유통판매업체 조사 주요 결과

- 소비자의 돼지고기 부위별 선호도는 5점 평균점수 기준으로 ‘삼겹살’이 4.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목심’ 4.32점, ‘갈비’ 3.67점, ‘안심’ 3.63점, ‘등심’, ‘항정살’ 각 3.5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유통·판매업체의 국내산과 수입산 삼겹살 취급 비중은 국내산 평균 83.1%, 수입산 평균 16.9%로 나타났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삼겹살 조달 경로는 ‘오프라인’ 평균 92.8%, ‘온라인’ 평균 7.2%로 나타났다.
- 국내산 삼겹살의 각 단계별 유통 시간은 ‘도축/가공 후 도매상 전달’ 평균 2.6일, ‘소매점 유통’ 평균 2.9일, ‘소비자 판매’ 평균 4.8일로 나타났으며, 수입산 삼겹살의 각 단계별 유통 시간은 ‘도축/가공 후 국내로 수입’ 평균 32.7일, ‘소매점 유통’ 평균 6.9일, ‘소비자 판매’ 평균 9.3일로 나타나 한돈(10.3일)과 수입산(48.9일)의 유통기간은 수입산이 국산 대비 평균 약 5배 가량 더욱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국내산 삼겹살 유통·판매 관련 고충 사항으로 한돈과 수입산 모두 ‘가격 변동성이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삼겹살의 품질 만족도는 한돈이 99.0%(매우 만족 : 60.0% + 대체로 만족 : 39.0%)하고, 수입산은 97.1%(매우 만족 : 41.4% + 대체로 만족 : 55.7%)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산에 비해 한돈 삼겹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매우 만족 응답 비율이 차이남)

3. 소비자 조사 주요 결과

- 일반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비자는 선호하는 삼겹살 원산지로 ‘국내산’ 74.9%, ‘수입산’ 1.9%로 응답하였으며, 국내산 삼겹살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맛이 좋아서’, ‘원산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안전할 것으로 생각해서’ 등을 꼽았으며, 수입산 삼겹살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 ‘맛이 좋아서’, ‘냉장 상태로 구입 가능해서’ 등을 꼽았다.

- 삼겹살 구매 시 고려 요인을 살펴본 결과(중복 응답) ‘신선도(53.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격(45.9%)’, ‘맛(40.9%)’, ‘원산지(35.2%)’, ‘안전성(34.9%)’, ‘품질 인증 마크(2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실제 구매 시 삼겹살 구매 관련 4가지 속성(원산지, 가격, 지방 함량, 냉동/냉장 여부)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원산지’, ‘가격’, ‘지방함량’, ‘냉동/냉장 여부’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성은 원산지와 지방 함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가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원산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제언

가. 관능평가 결과 한돈이 수입산보다 우수

- 한돈 삼겹살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수입산보다 우수하였음
- 고령층은 한돈에 대한 선호가 뚜렷함
 - 가격 경쟁력에서 한돈이 다소 열세이기 때문에, 수입산 냉장 삼겹살이 한돈 삼겹살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음

나. 짧은 유통일수와 신선도 유지가 한돈의 장점

- 한돈이 수입산보다 유통 일수가 훨씬 짧아 소비자들은 수입산보다 신선한 한돈 삼겹살을 먹을 수 있음

단위 : 일	사례수	도축/가공 후 도매상 전달	소매점 유통	소비자 판매
국내산	100	2.6	2.9	4.8
수입산	70	32.7	6.9	9.3

<국내산·수입산 평균 유통 시간>

- 수입산이 냉장 상태로 유통되고, 유통기한도 짧아져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한돈의 장점이 상쇄됨으로 경계 필요

다. 과학적 근거로 삼겹살 지방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 삼겹살 지방의 영양적 우수함을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홍보 필요
 - 지방은 비만의 원인 혹은 포화지방이 많아 성인병에 원인이 된다는 오해 등을 해소하여 소비자들이 기피하지 않도록 해야 함

라. 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 향상

- 삼겹살이 먹기 편한 형태로 손질되고, 소량에 접근이 용이한 유통 경로로 소비가 되도록 조치 필요
 - 수입산 냉동을 소비하는 이유는 값이 싸기도 하지만, 먹기 좋게 손질되어있거나 조리가 편하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편의점이나 온라인 유통에 입점을 늘릴 필요 있음

마. 고급화·차별과 및 브랜드 신뢰도 향상 필요

- 소비자들은 수입산보다 한돈에 더 많은 비용 지불 의향 있음 확인
 - 약 10~15% 가량
- 하지만, 삼겹살은 가격 민감도가 높고, 특히 저연령일수록 그러함
 - 수입산 삼겹살 소비로 전환하는 이탈층 발생
- 한돈 브랜드 신뢰성 높이는 방안 및 수입산 대비 안전성과 부가적 효능 관점에서 차별화 필요
 - 브랜드별로 품질관리 차이가 크고, 더 맛있는 삼겹살을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한 상황

국내외 돼지 및 돼지고기 수급 동향

1 국내 동향

가. 돼지고기 공급량 (생산 + 수입)

- '24. 10월까지 돼지고기 공급량을 보면,
 - 공급량(생산 + 수입)은 1,333천톤, 전년동기비 약 6.4%(80,048톤) 증가
 - 생산량은 927천톤, 전년동기비 약 1.5%(13,411톤) 증가
 - 수입량은 405천톤, 전년동기비 약 19.7%(66,637톤) 증가

표. 연도별 국내 돼지고기 공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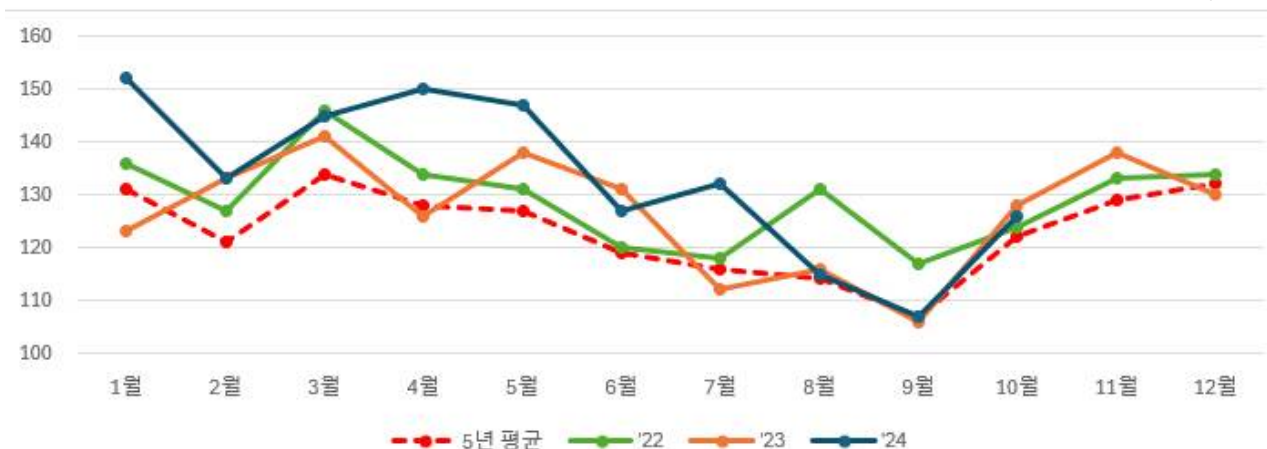
(단위 : 톤)

년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10월)
					(1~12월)	(1~10월)	
생산량(A)	1,066,211	1,097,043	1,097,383	1,107,375	1,118,167	913,851	927,262
수입량(B)	421,480	311,180	332,455	435,450	402,865	338,842	405,479
공급량 (A+B, 재고 제외)	1,487,691	1,408,223	1,429,838	1,542,825	1,521,032	1,252,693	1,332,741

※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 금년도 돼지고기 공급량 추세를 보면,
 - 1~7월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8~10월에 평년 수준 접근

(단위 : 천톤)



< 그림. 돼지고기 공급량(생산 + 수입)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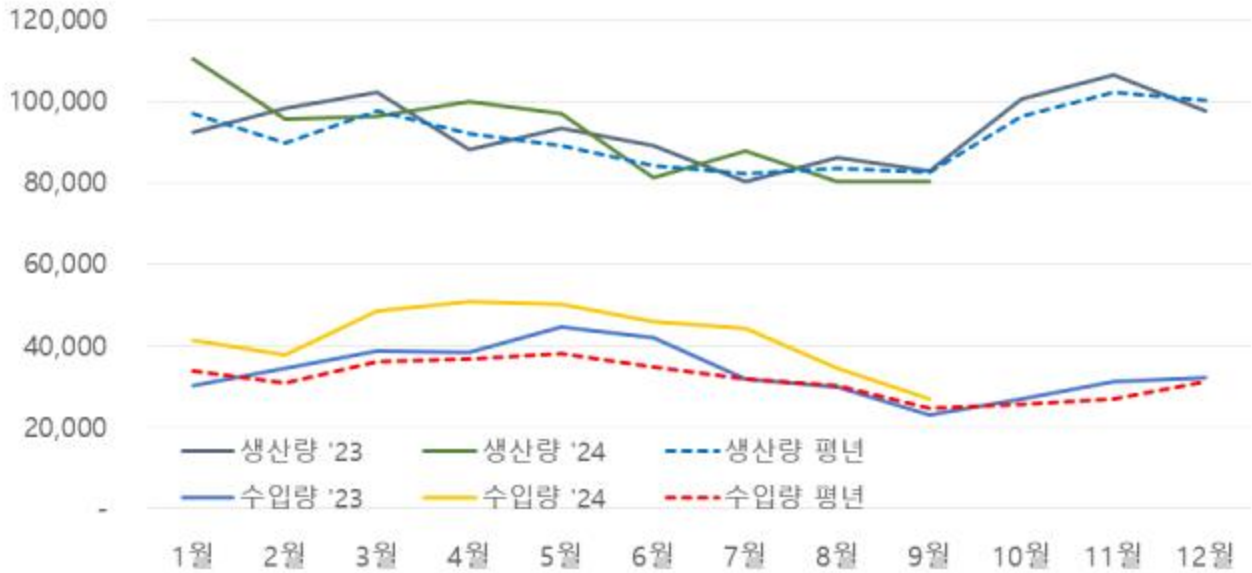
○ 월별로 보면 생산량은 평년 대비 낮고 높음을 교차한 반면, 수입량은 평년 대비 연중 높은 수준을 유지

- 평년대비 높은 생산량 기록 월 수 : 5회(1, 2, 4, 5, 7월)

※ 생산량은 올해 8월부터 폭염 영향으로 평년보다도 낮은 수준 기록

- 평년대비 높은 수입량 기록 월 수 : 9회(1 ~ 9월 전월)

(단위 : 톤)



월	생산량			수입량		
	'23	'24	평년	'23	'24	평년
1월	92,375	110,523	97,009	30,188	41,339	33,731
2월	98,369	95,613	89,680	34,295	37,648	30,890
3월	102,098	96,325	97,791	38,658	48,381	36,209
4월	88,168	100,043	91,954	38,232	50,947	36,603
5월	93,436	96,980	89,062	44,685	50,178	38,115
6월	89,198	81,406	84,239	42,030	45,738	34,915
7월	80,391	87,941	82,358	31,793	44,105	31,749
8월	86,262	80,245	83,667	29,934	34,455	30,255
9월	83,022	80,352	82,495	22,855	26,919	24,723
10월	100,532	97,834	96,439	27,031	28,020	25,518
11월	106,630		102,144	31,108		26,767
12월	97,686		100,398	32,056		31,212
계	1,118,167	927,262	1,097,236	402,865	407,730	380,687

< 그림. 연도별 월별 돼지고기 생산량과 수입량 변화 >

나. 돼지고기 수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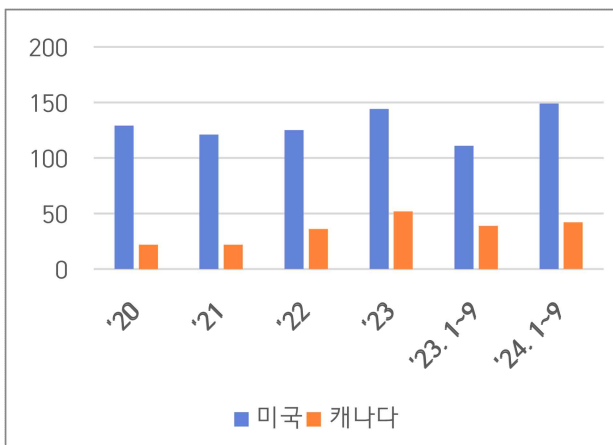
- 10월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405천톤으로 전년(339천톤)比 + 20% 증가
 - (냉동) 냉동 수입량은 375천톤으로 전년(311천톤) 比 + 21% 증가
 - (냉장) 냉장 수입량은 30천톤으로 전년(28천톤) 比 + 5% 증가
- 냉동육은 미국 153천톤으로 냉동수입량의 41% 차지, 전년(136천톤)比 + 12% 급증
 - 미국·칠레·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리아 등 순으로 수입비중이 높음
- 냉장육은 캐나다 21천톤으로 냉장수입량의 70% 차지, 전년(22천톤)比 -4% 감소
 - 캐나다(21천톤)·미국(5천톤)·칠레(0.2천톤) 등 순으로 수입비중이 높음
- 네덜란드·덴마크 등 EU산 냉동육의 수입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산 냉동육이 EU산 냉동육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음

구 분		덴마크	벨기에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칠레	프랑스	오스트리아	기타	계	
'22	소계	14,560	6,351	36,375	125,314	48,096	28,378	9,097	22,706	151,495	442,372	
	냉동	14,560	6,351	21,012	116,948	48,096	28,378	9,097	22,706	147,460	414,608	
	냉장			15,362	8,366					4,036	27,764	
'23	소계	1~12월	7,190	7,549	52,101	143,726	26,603	29,720	7,847	18,098	110,081	402,915
		1~ 8월	5,419	5,307	35,432	104,966	20,441	19,492	5,341	12,479	79,398	288,275
	냉동	1~12월	7,190	7,549	30,059	136,471	26,603	29,698	7,847	18,098	104,986	368,501
		1~ 8월	5,419	5,307	21,594	99,703	20,441	19,492	5,341	12,479	76,264	266,040
	냉장	1~12월			22,042	7,255		22			5,095	34,414
		1~ 8월			13,837	5,264					3,134	22,235
'24 (~10월)	소계	3,587	6,595	46,010	158,213	27,089	31,214	5,627	11,713	115,430	405,480	
	냉동	3,587	6,595	24,875	153,048	27,089	30,956	5,627	11,713	111,791	375,282	
	냉장			21,135	5,166		258			3,639	30,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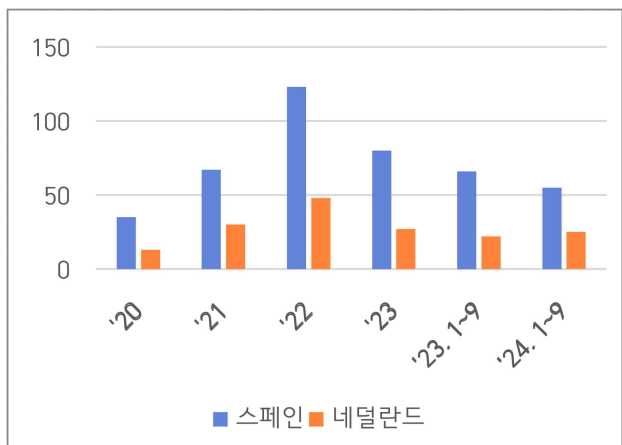
※ 출처 : 무역통계, 축산물품질평가원, 육류유통수출협회

(단위 : 천톤)

(단위 : 천톤)



<그림. 북미지역 돈육 수입량>



<그림. 네덜란드 등 유럽지역 돈육 수입량>

다. 돼지고기 생산량

◎ 돼지고기 생산량은 1~2분기에는 평년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다, 8~9월에는 폭염(‘18년 이후 최대 폭염일수) 영향을 받아 도축두수 하락, 등급저하, 출하체중 감소 등을 동반하며 생산량 큰폭 하락

1) 폭염일수

- ‘24년 폭염일수는 전년비 +14일 증가, 평년비 +20일 증가
- 이는 2018년 이후 최대 일수, 여름이 약 10일 가량 늦게 끝남

표. 연도별 폭염 일수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폭염 일수	10일	8일	24일	13일	35일	15일	4일	18일	10일	19일	33일

* 폭염 :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계속되는 현상

※ 자료출처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2) 도축두수

- 1~2분기(1~6월) 돼지 도축두수는 전년과 평년대비 3% 이상 높음
- 전년동기비 + 3.3%(303천두), 평년동기비 + 4%(375천두)
- 8 ~ 9월 돼지 도축두수는 전년대비 -2~6% 낮은 수준
- 전년동기비 ‘24. 8월 - 6.5%(91천두), 9월 - 2.1%(29천두)
- 평년동기비 ‘24. 8월 - 2.5%(36천두), 9월 - 2.7%(39천두)

표. 돼지 도축두수

(단위 : 천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24	1,831	1,581	1,592	1,661	1,613	1,365	1,491	1,389	1,403	1,662	1,736 [㉠]	1,729 [㉠]	19,059 ([㉠])
	5,006 (26.3%)			4,639 (24.3%)			4,284 (22.5%)			5,129 (26.9%)			
2023	1,529	1,612	1,688	1,463	1,552	1,494	1,362	1,480	1,432	1,672	1,774	1,625	18,688
	4,830 (25.8%)			4,510 (24.1%)			4,275 (22.9%)			5,072 (27.1%)			
2018	1,598	1,352	1,466	1,463	1,442	1,300	1,290	1,299	1,262	1,686	1,662	1,524	17,350
	4,417 (25.5%)			4,206 (24.2%)			3,852 (22.2%)			4,873 (28.1%)			
평년	1,619	1,525	1,643	1,557	1,502	1,423	1,392	1,425	1,442	1,593	1,713	1,684	18,522
	4,788 (25.9%)			4,482 (24.2%)			4,260 (23.0%)			4,990 (26.9%)			

※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3) 돼지도체 등급판정

- 올해 8월, 9월은 최근 5년내 2등급 이하 출현율이 가장 높은 수준
 - (등외등급 출현율) 최근 5년 중 2024년 8월이 최고(4.1%) 기록
 - (2등급 등급출현율) 최근 5년 중 2024년 9월이 최고(32.9%) 기록

☞ 이는, 폭염일수 최다(35일)를 기록한 2018년 출현율보다 조금 낮음
 표. 돼지도체 등급출현율

(단위 : %)

월	2020		2021		2022		2023		2024		2018(대조군)	
	2등급	등외	2등급	등외	2등급	등외	2등급	등외	2등급	등외	2등급	등외
1월	31.8	3.6	31.5	3.3	27.9	3.6	28.6	3.7	28.7	3.5	32.2	3.6
2월	31.6	3.8	30.6	3.5	29.3	3.9	29.7	4.0	28.7	3.8	32.0	3.9
3월	29.3	3.3	29.3	3.4	28.7	3.9	28.1	3.6	28.3	3.5	32.3	3.7
4월	29.0	3.1	28.5	3.2	27.6	3.8	27.8	3.6	28.0	3.5	32.1	3.8
5월	28.9	3.2	28.4	3.1	27.2	3.6	27.7	3.7	27.6	3.5	31.3	3.7
6월	28.4	3.3	28.2	3.4	27.4	3.8	27.6	3.6	27.3	3.5	31.2	3.8
7월	29.0	3.3	28.6	3.6	28.0	4.1	28.5	3.7	28.5	3.8	32.4	3.9
8월	30.9	3.5	29.2	3.6	30.0	3.9	30.2	3.9	31.0	4.1	33.7	4.3
9월	31.6	3.4	29.5	3.5	29.2	3.8	31.0	3.7	32.9	3.8	33.3	3.8
10월	30.2	3.2	27.8	3.5	28.5	3.8	28.6	3.6	28.4	3.7	31.0	3.6
11월	29.4	3.2	27.3	3.4	28.4	3.7	27.8	3.6			31.8	3.7
12월	29.9	3.4	27.4	3.5	28.0	3.5	27.8	3.4			31.2	3.7

*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4) 출하체중

- 금년 7~9월 출하체중은 112~114kg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
- 연간 평균체중(116kg) 대비 7월 -2kg, 8월 -3kg, 9월 -4kg 하락

표. 돼지 출하체중

(단위 : kg)

월별	2024			2023			2022			2021			2020		
	평균	암	수	평균	암	수	평균	암	수	평균	암	수	평균	암	수
12월				116	118	114	116	118	114	116	118	114	116	118	115
11월				116	118	114	116	118	115	116	118	114	116	118	114
10월				116	118	114	116	118	114	115	118	113	116	118	114
9월	112	114	110	112	115	110	114	116	112	113	116	111	113	116	111
8월	113	115	110	113	115	110	113	116	111	113	115	111	114	117	112
7월	114	117	112	114	117	112	114	116	112	114	116	111	115	117	113
6월	116	118	114	116	118	113	116	118	113	115	117	113	116	117	114
5월	117	119	115	116	119	114	116	118	114	116	118	114	117	118	116
4월	117	119	115	116	118	114	116	118	114	116	118	115	117	118	116
3월	117	119	115	117	119	115	117	119	115	117	118	115	118	119	116
2월	117	119	115	118	120	116	118	120	116	117	119	115	118	119	117
1월	116	118	114	117	118	115	116	118	114	117	119	115	118	119	117
평균				116	118	114	116	118	114	116	118	114	116	118	115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도축실적

라. 돼지고기 재고량

◎ 국내산 재고량은 9월에는 1월比 - 34%(6,200톤) 하락, 후지 재고량은 전년비(-55%)·평년비(-77%) 큰폭 감소, 나머지 부위는 재고 변화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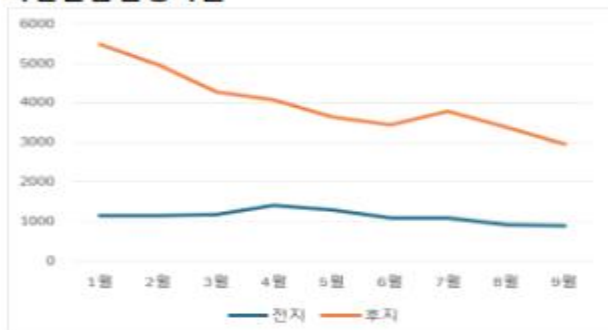
- (국내후지) 9월 재고량(2,974톤)은 1월(5,493톤) 대비 - 49%(2,519톤) 감소 - 전년比 - 55%(3,592톤) 감소, 평년比 - 77%(10,243톤) 감소
- (국내전지) 9월 재고량(895톤)은 1월(1,141톤) 대비 - 27%(252톤) 감소
- (국내삼겹) 9월 재고량(2,412톤)은 1월(3,825톤) 대비 - 37%(1,413톤) 감소
- (국내목심) 9월 재고량(1,101톤)은 1월(2,041톤) 대비 - 46%(940톤) 감소
- (총재고량) 총 재고량은 후지 재고량 감소로 전·평년 대비 큰 폭 감소

표 국내산 돼지고기 부위별 재고량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4	전지	1,142	1,147	1,189	1,421	1,295	1,090	1,086	924	895
	후지	5,494	4,961	4,295	4,082	3,647	3,453	3,794	3,389	2,975
	삼겹	3,825	3,740	3,870	3,915	3,594	3,099	2,710	2,513	2,412
	목심	2,041	2,214	1,978	1,786	1,679	1,408	1,200	1,196	1,101
	기타	5,832	5,291	4,954	5,552	5,629	5,345	5,302	4,749	4,744
	계	18,334	17,355	16,286	16,756	15,843	14,395	14,091	12,771	12,128
23	전지	967	1,040	1,084	1,206	1,545	1,235	1,030	924	837
	후지	4,789	4,749	5,085	5,211	6,203	6,916	7,240	7,173	6,567
	삼겹	4,185	2,734	2,453	3,202	3,510	3,591	3,522	2,848	2,567
	목심	2,142	2,034	1,545	1,572	2,218	1,362	1,317	1,212	1,066
	기타	6,848	5,377	4,153	4,740	5,041	5,435	5,478	4,791	3,931
	계	18,931	15,934	14,320	15,930	18,516	18,539	18,586	16,948	14,968
평년	전지	2,559	2,622	2,709	2,543	2,401	1,972	2,074	1,786	1,629
	후지	14,287	13,811	14,842	14,214	14,851	14,303	13,952	14,908	13,218
	삼겹	4,000	3,239	3,459	3,367	3,269	3,009	2,853	2,495	2,353
	목심	2,328	2,275	2,212	2,000	2,014	1,711	1,561	1,433	1,371
	기타	10,336	9,658	10,149	10,211	9,429	8,720	8,415	8,356	7,207
	계	33,511	31,604	33,371	32,334	31,964	29,715	28,854	28,979	25,779

※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육류유통수출협회



마. 업계동향

○ 국내산 후지 재고량이 낮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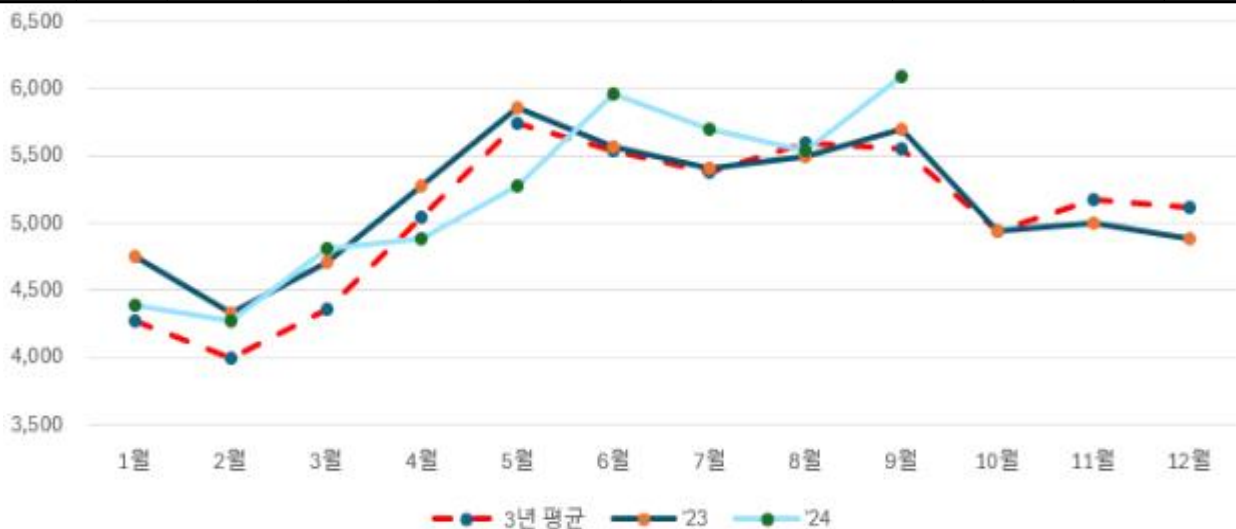
- 현재 유럽산 시장은 거의 종결 상태, 미국산 전지를 활용 중
- 미국산 전지는 미국경기와 물량부족 등으로 연초대비 20% 가격 상승
- 미국산 전지는 현재 4,500~4,600원/kg, 국내산 후지는 5,000원/kg 형성
- 이 정도 가격 차이에서는 지방함량이 낮은 국내산 후지가 미국산 전지보다 경쟁력이 높음
- 이로 인해, 국내 육가공업체에서 국내산 후지 사용이 많음

바. 돼지가격

- 1 ~ 9월 평균 도매가격은 5,125원/kg으로 전년동기 5,205원/kg 대비 - 80원 낮게 형성 중
- 2024년 9월 돼지 경락 가격은 작년 동기 대비 6.9% 상승(+ 393원)
- `24년 평균 돼지가격은 전년보다 - 34원/kg 낮은 5,100원/kg 예상

(단위 : kg/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3	4,756	4,326	4,712	5,275	5,858	5,571	5,407	5,499	5,705	4,947	5,002	4,890	5,162
'24	4,386	4,272	4,807	4,892	5,278	5,969	5,694	5,544	6,098	-	-	-	5,216
3년 평균	4,268	3,996	4,356	5,051	5,745	5,545	5,386	5,594	5,558	4,939	5,172	5,122	5,061



< 그림. 돼지 경락가격 >

사. 향후변수

□ 돈육 소비

- 역대 최고 공급(9월까지 1,248천톤, 전년동기비 +86천톤) 상황 속 국내산은 최저 재고(21.6천톤)를 기록하는 등 돼지고기 소비 받쳐주는 상황임
- 이는 외식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정 및 간편식 등 소비증가 영향으로 판단

- ① 추석·한돈데이 한돈 자조금 소비 마케팅 강화, 가을 나들이 증가 영향
- ② 소비자들이 돼지고기가 타 품목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품목 인식
 - 돼지고기의 가격 상승률은 농산물 등 타 품목대비 1/10 수준
 -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비 **채소류 +18.6%**(돼지고기의 9배), **돼지고기 +2.7% 상승**
- ③ 국내산 후지 재고량 매우 적음
- ④ 최근 소비 패턴을 보면 외식 소비 감소 뚜렷
 - 외식산업 경기지수는 2분기에 **75.6**(전분기비 -3.68, 전년동기비 -7.66) 강한 축소세

- 그러나, 소비가 연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질 생산량 증가를 받치기는 어렵다고 판단, 현장에서는 벌써 후지 외 부위는 재고 증가 추세

□ 국내산 후지 재고

- 국내산 후지 재고량은 예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현재 돼지가격 지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 미국 대선 종료 후 미국 경기·환율 하락 등에 따라 수입 원료육 사용량 변화가 커질 경우, 돼지 가격 지지 효과 빠르게 약화 전망

□ 단기 가격 변동

- ASF 발생에 따른 역학 등 이동제한 시 도매가격이 소폭 상승
- 앞으로도 ASF 발생에 따른 도매시장의 단기 가격 상승 현상은 간헐적 발생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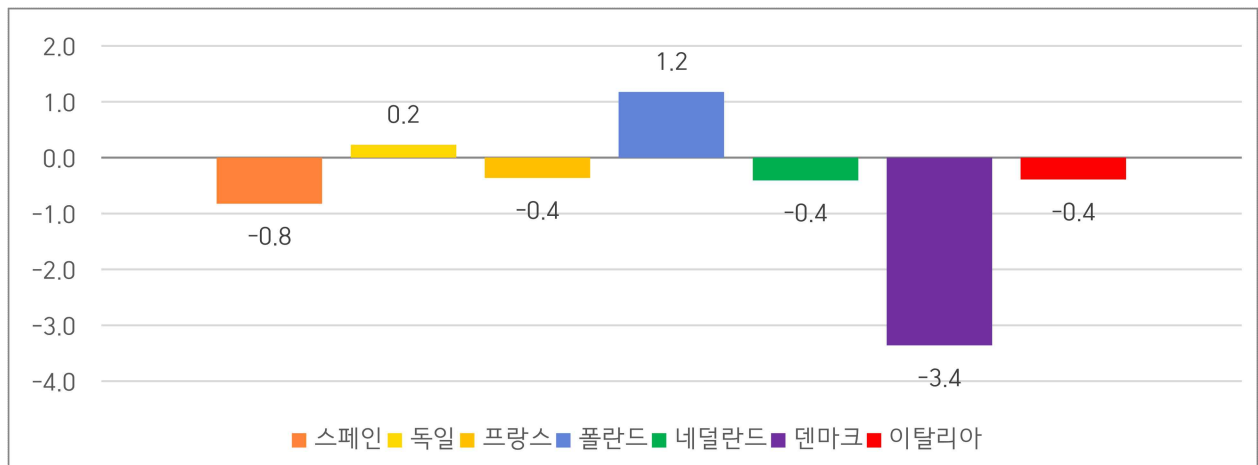
표. ASF 발생 전후 도매가격 차이 비교

구 분	발생전주(A)	발생 주간	발생차주(C)	가격차이(C-A)
철원(` 24. 5)	5,261	5,419	5,428	167
영천(` 24. 6)	5,499	5,945	6,301	802
화천(` 24.10)	5,736	5,740	5,810	74

□ EU

- (도축두수) 상반기 돼지 도축두수는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등에서 전년 대비 - 0.4 ~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덴마크는 전년 대비 -3.4% 수준으로 가장 큰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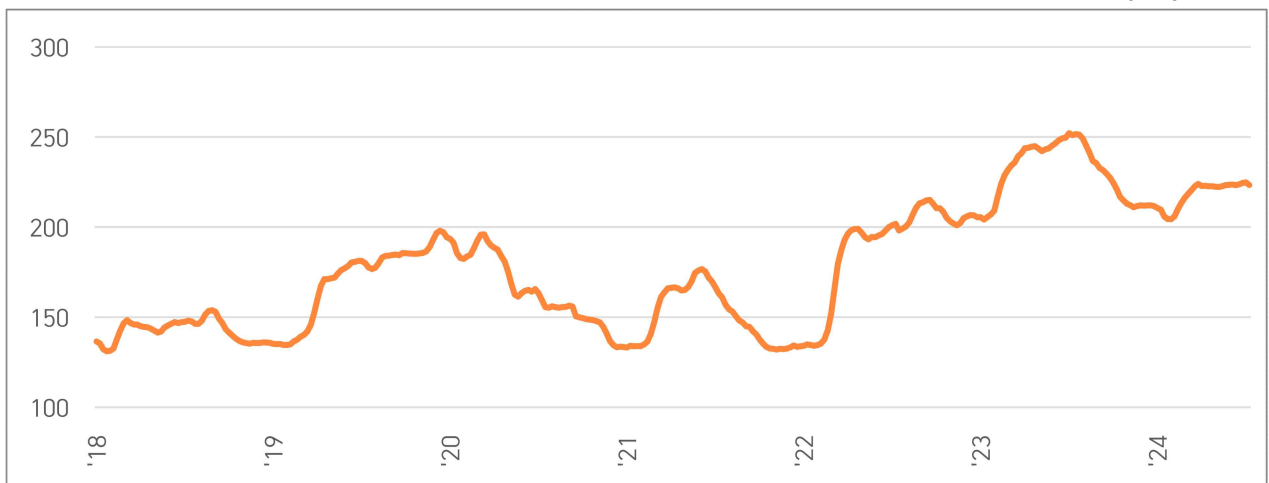
(단위 : %)



< 그림. 2024년 상반기 EU국 도축두수 증감률(전년대비) >

- (돼지가격) `24년 상반기 돼지가격은 `23년 대비 - 7% 감소
 - [`23. 상반기] 233.5유로(약 35만원) → [`24. 상반기] 217.9 유로(약 32.5만원)
 - `24년 39주차 돈가(약 324만원)는 고점(`23년 27주차, 약 37.6만원) 대비 - 13.7% 감소

(단위 : 유로/100kg, Pig Class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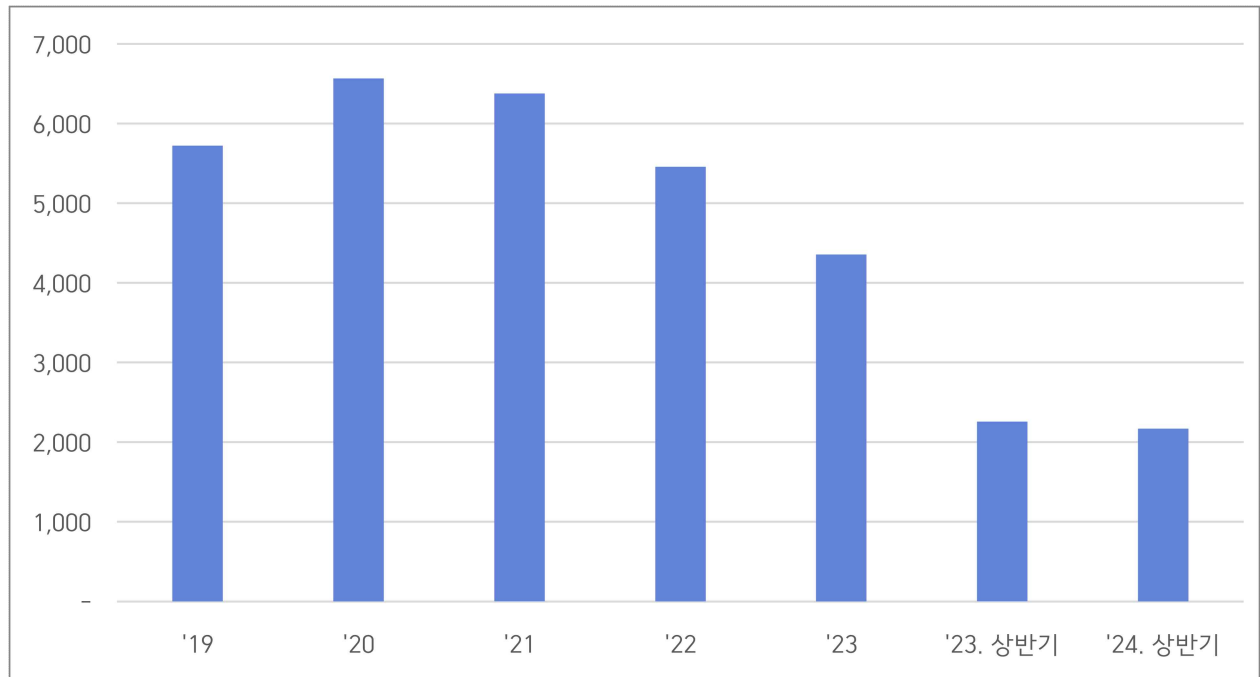


< 그림. EU 돼지 도매가격 >

○ (돈육수출) '24 상반기 수출량은 전년동기 대비 -3.9%(88천톤)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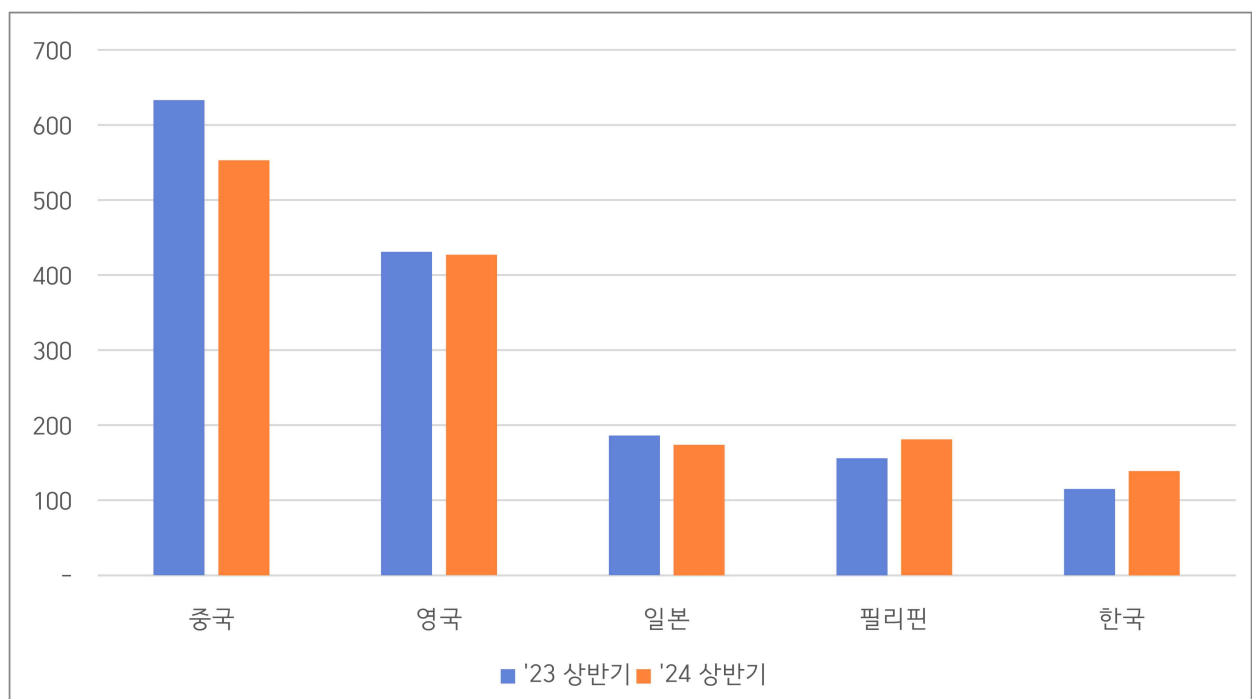
- 수출 감소 국가 : 전년동기비 중국 -12.6%, 영국 -0.9%, 일본 -6.6%,
- 수출 증가 국가 : 전년동기비 필리핀 +16%, 한국 +21% 증가

(단위 :천톤)



< 그림. EU 돼지고기 수출량 >

(단위 : 천톤)



< 그림. EU의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량 변화 >

2025년 세계 돼지 수급 전망

‘25년 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비 1% 감소한 1억1,510만톤 전망

- 중국·EU의 생산량 감소가 미국·베트남·브라질의 생산 증가 상쇄
 - 중국의 ‘25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비 2% 감소한 5,550만톤 예상, 이는 모돈재고 감소, 경제불확실성, 가금류 소비선호도 증가 등 영향
 - 유럽연합은 돼지 가격 하락 영향으로 2% 감소한 2,090만톤 예상
 - 미국은 수익성 개선과 사료 비용 감소로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고, 수출 가격 경쟁력도 갖춰 ‘25년 수출량은 전년비 3% 증가한 340만톤 예상

글로벌 수출은 ‘25년에 전년비 1% 증가한 1,040만톤 전망

- 미국과 캐나다의 수출 증가가 유럽연합의 수출 감소 상쇄
 - 캐나다의 수출량은 전년비 1% 증가, 미국의 안정적인 수요와 한국·일본 등 아시아 수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150만톤 예상
 - EU 수출량은 공급량 감소와 ASF 무역제한으로 2% 감소한 295만톤 예상
 - 미국은 ▲한국·호주에서 EU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을 것, ▲브라질과의 경쟁 심화, ▲멕시코가 여전히 미국 수출 핵심 시장 등으로 예상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입국은 이제 중국이 아니라 멕시코와 일본 전망

- ‘25년에는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 미국(340만톤), 최대 수입국은 멕시코(143만톤)와 일본(143만톤), 최대 생산국은 중국(5,550만톤)으로 예상

< 2025년 국가별 돼지 생산·소비·수출입 전망 >

(단위: 백만두, 백만톤)

구분	사육두수	생산두수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	소비량
중국	400	700	55.5	1.4		56.8
유럽연합	133	220	20.9	-	3	18
브라질	34	48	4.6	-	1.5	3
캐나다	14	30	2.1	-	1.4	-
멕시코	13	22	1.6	1.43	0.2	2.8
일본	9	17	1.3	1.43	-	2.8
미국	78	14	12.9	0.5	3.4	10.1

※ 자료출처 : USDA

2024년 11월 한돈팜스 수급 전망 보고서

2024년에도 생산성을 높여 생산원가의 절감과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선도합니다.

1. 10월 한돈 산업 동향 및 11월 가격 전망

구분	9월	10월	변동율(%)	비고
도축두수(두)	1,403,709	1,662,985	18.5 ▲	
도매가격(원/kg)	6,098	5,702	6.5 ▼	
삼겹살가격(원/100g)	2,671	2,690	0.7 ▲	
목살가격(원/100g)	2,536	2,544	0.3 ▲	
일 평균 경매두수(두)	1,587	1,579	0.5 ▼	
돈육 수입량(톤)	26,886	28,020	4.2 ▲	2023년 10월 돈육 수입량 27,939톤

구분	7월	8월	변동율(%)	비고
국내 재고량(톤)	32,129	21,628	32.7 ▼	
수입 재고량(톤)	240,512	236,958	1.5 ▼	

10월 도축두수는 전체 166만3,000두로, 전월 140만4,000두에 비해 약 25만9천두가 증가하였으며, 돼지 도매가격은 5,702원/kg으로 전월 6,098원/kg 대비 396원/kg (약 6.5%) 상승, 전년 동월 4,947원/kg 대비 755원/kg (약 15.3%)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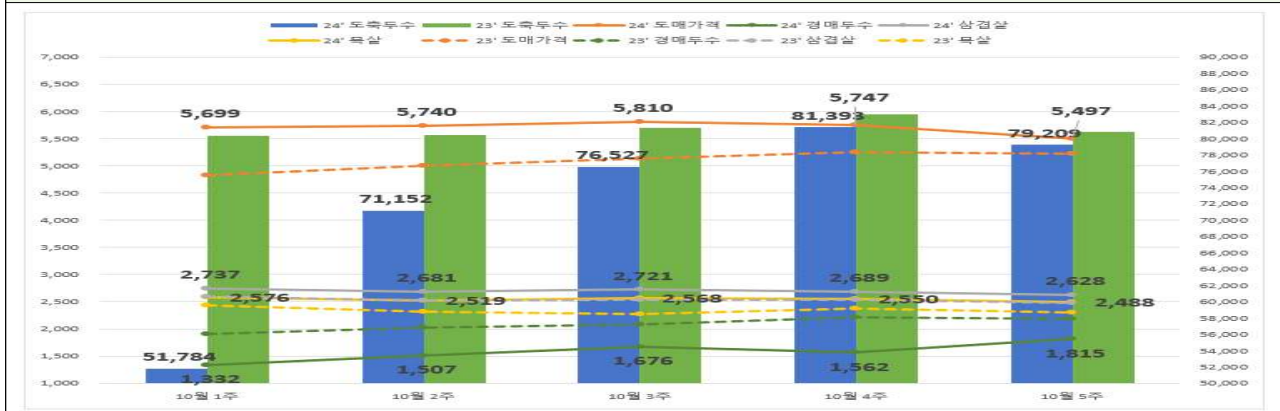
역대 10월 도매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보였으며, 역대 최고 공급, 최저 재고량으로 소비가 활발히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등 타 품목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품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외식 소비 감소, 가정 소비 증가세가 예상된다.

10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약 2만8천톤으로 전월 대비 4.2% 증가, 전년(2만8천톤)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10월 돼지고기 수입량 또한 2만톤대로 수입되었으나, 누계로는 전년 수입량을 넘어섰다. 국내 돈육 재고량은 8월 약 2만1천톤으로 7월 3만2천톤 대비 약 32.7% 감소하였으며, 수입 재고량은 올해 1월(19만톤)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8월 23만 7천톤까지 증가하였다.

10월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55원/kg (약 15.3%)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올해 10월까지 평균 돼지가격은 5,184원/kg으로 전년 동기 5,177원/kg 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11월 평균 지육가(제주제외)는 4,900~5,200원/kg으로 전망 됨.

※ 여름 폭염 장기화에 따라 하락요인이 크나 11월 김장수요 등 상승요인으로 상쇄 예상



2. 향후 6개월 사육 및 출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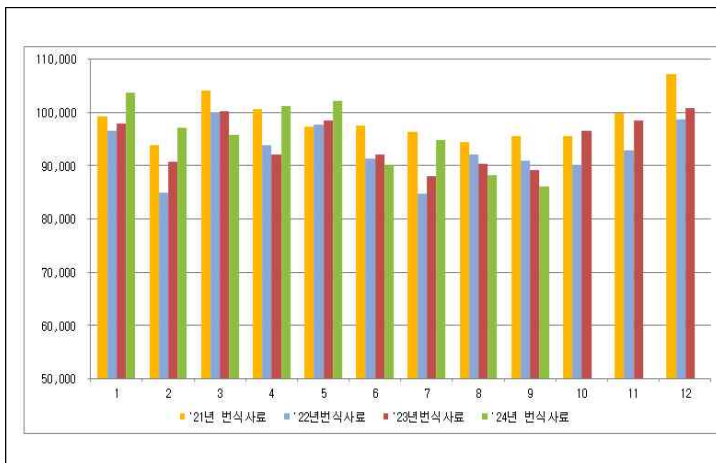
(단위: 두, %)

구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추정 사육두수	11,230,000	10,892,000	11,266,000	11,327,000	11,030,000	11,200,000
추정 출하두수	1,736,000	1,729,000	1,654,000	1,662,000	1,693,000	1,556,000
전년 출하두수	1,774,471	1,625,657	1,831,445	1,581,648	1,592,975	1,661,116
전년 출하대비	97.0	104.1	79.7	89.5	85.0	93.7

11월 출하두수는 전년 동월보다 2.1% 적은 173만 6천두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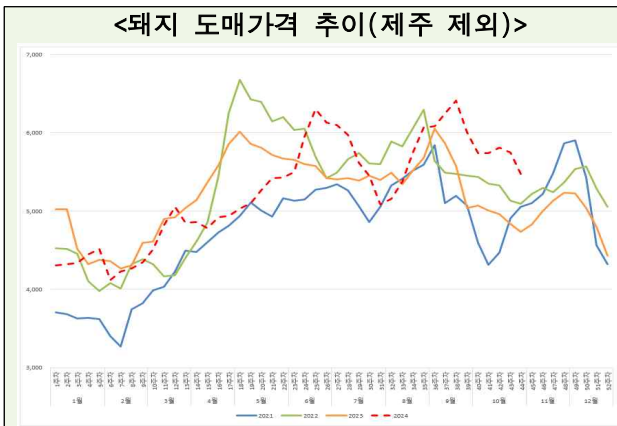
11월 작업일수는 전년보다 하루 적은 21일, 1일 도축두수는 8만2천두로 전년보다 2.5%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번식돈 사료 생산량으로 추정된 모돈수(후보돈 포함)는 약 94만여 두로 추정된다.

3. 사료생산 실적 (2021. 1 - 2024. 9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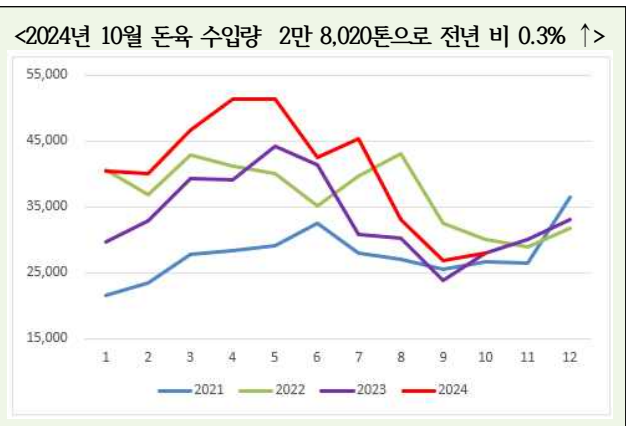


2024년 9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총 531천 톤으로 전년 동월(569천 톤)보다 6.6% 적었으며, 최근 5년간 9월 생산량 중 가장 적은 양이 생산되었다. 번식돈 사료량은 86천 톤으로 전월 대비 3.6% 감소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하였다. 비육돈 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7.1% 감소한 445천 톤으로 조사되어 전체 사료 생산량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까지 누계 사료생산량은 5,140천톤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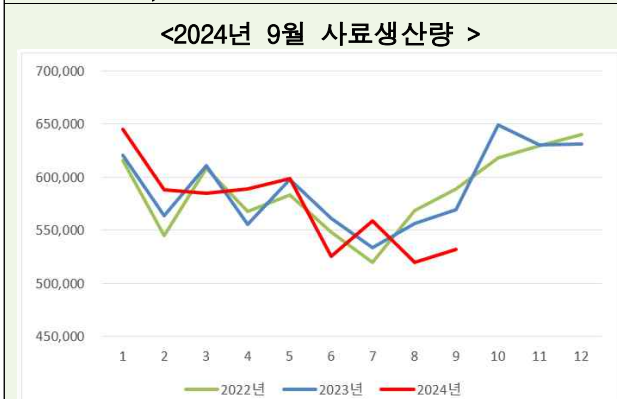
4. 국내 돈육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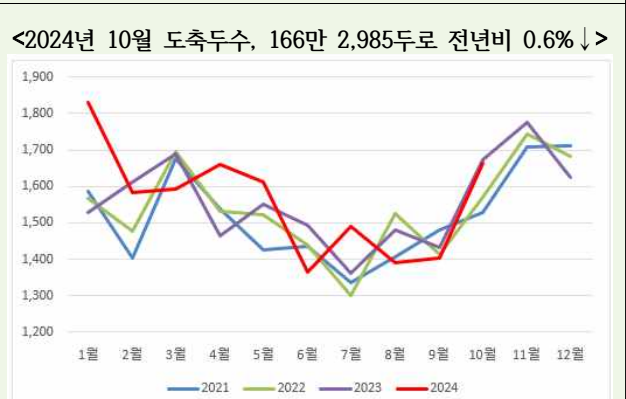
연도별, 주간별 전국 평균 비육 돈가 변화



연도별, 월별 돼지고기 수입동향(톤)



연도별, 월별 배합사료 생산량(톤)



연도별, 월별 돼지 도축두수(천두)

기후변화에 따른 양돈장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제안

- ◎ (제안배경) 금년도에는 양돈장의 폭염 피해 급증한 가운데, 내년도 폭염 피해를 선제대응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안코자 함
- (양돈 폭염 피해) 손해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보험 보상 두수는 '24. 9월 말 기준 89천두로 전년비(51천두) 75% 증가

※ 본 자료는 정부에 건의한 자료입니다.

1. 폭염 피해 예방 기자재에 대한 세제 혜택 요구

- 대상품목 : 에어컨(냉난방기), 제빙기 등 폭염 피해 예방 목적의 기자재
- 세제혜택 : 부가세 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

2. 가축재해보험 중 폭염 특약 조건 개선을 통한 가입률 향상 유도

1)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로 인한 가입률 저조

- 가축재해보험의 국비·지방비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지원한도 금액이 설정되어 있음
- 양돈은 타축종대비 보험가입금액이 커, 자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2) 에어컨 설치·운영 농가에 대한 보험료 인하 요구

- 양돈장에서는 에어컨 설치를 위한 고압전력 전기공사 비용으로 1억 원, 장비 구입 비용으로 1대당 1,500 ~ 2,000만 원 상당 막대한 비용 투자
- ☞ (요구사항) 에어컨 설치 농가의 경우 폭염 피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니 보험료 인하 요구

3) 폭염 피해 적용 기간 연장(특보 발령 전후 1일 → 5일) 요구

- 폭염 피해 적용 기간은 폭염 특보 발령 전후 1일로 매우 짧음
- 폭염 발생 시 돼지 개체별 건강도 차이에 따라,
 - 약한 개체는 폭염 특보 발령 수일 전에 이미 죽고, 건강한 개체는 상대적으로 오래 버티다가 특보 해제 수일 이후에 죽는 개체도 있음
- ☞ (요구사항) (현재) 폭염특보 발령전 24시간(1일)전부터 해제후 24시간(1일) 이내에 폐사 시 → (연장) 폭염특보 발령전 120시간(5일)전부터 해제후 120시간(5일)이내에 폐사 시

4) 자기부담금 납입 횟수(다회 → 연 1회) 축소 요구

- 자기부담금 다회 납입
 - 폭염특보가 당해 여름 동안 3차례(8.1 ~ 8.5, 8.15 ~ 8.20, 9.1 ~ 9.10) 발령되고, 세 기간 동안 각각 20두씩 가축 폐사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이 경우 폭염 피해 3건 발생으로 보고 자기부담금은 3회 납입하고 있음
- ☞ (요구사항) 당해년도 여름기간 동안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1회만 납부

3. 폭염 특보 발령 기간 중 농사용(을) 전기료 일시 인하 요구

- 양돈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에어컨 설치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사용(을) 고압전력 사용도 증가함
- 농사용(을) 전기료는 매년 단가 인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고압전력에 대해서는 여름(6~8월) 기간 중 계절차등 요금이 추가 적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양돈장에는 3년 전 대비 여름철 전기료가 2배 이상 급등
- ☞ (요구사항) 폭염 특보 발령 기간 중 농사용(을) 전기료 일시 인하 적용

글로벌 돼지 이슈

○ 덴마크 크라운, 일자리 500개 감축

덴마크 덴마크 크라운 CEO인 Niels Duedahl은 회사 금융위기 대처를 위해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도출할 수 있는 돼지의 사육두수 감소가 감소하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비용으로 덴마크 최대 육류 회사인 덴마크 크라운의 경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현재 수익에 비해 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약 5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로 연간 5억 크로네(1,003억원)를 절감하고, 핵심 업무에만 집중하려는 계획이다.

Duedahl은 자사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으며, 내부 전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9월 CEO로 취임한 Duedahl은 그룹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회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할 경우, 해고 범위를 제한하고 해고 대상자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직원 대표들과 법적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통지서는 협상 기간이 끝난 후 덴마크에서는 10월 말까지, 그 외 국가에는 각국 규정에 따라 전달될 예정이다.

○ 영국 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6년 만에 최고치 기록

AHDB(영국농업원예개발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영국 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2019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2024년 8월 AHDB와 블루 마블이 공동으로 실시한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67%의 소비자가 영국 농업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조사 결과 76%의 영국 성인이 농업을 ‘신뢰할 수 있는 직업’ 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면서 교사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의사(78%)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국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농업과 식품 생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소비자의 44%는 농업에 관심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와 같은 관심 증가는 식품의 원산지과 생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소비자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더욱이 AHDB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산 식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74%의 응답자가 영국 농부와 재배업자들이 식품 생산에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소비 습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56%가 수입 식품보다 자국의 식품을 찾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5월 이후 3%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다.

○ 돼지고기 온실가스 배출량 상대적으로 적어

리뷰 논문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탄소배출량이 타 육류 단백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 더 큰 탄소 발자국을 남기지만,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특정 맥락에 맞춰져 있거나 육류 단백질의 다양한 종류를 명확히 구분한 것은 아니다.

연구자는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건강 식단에서 돼지고기의 위치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분석에서는 미국의 인기 식단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이전 연구의 온실가스 배출(GHGE) 추정치가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단백질 식품을 카테고리 별로 분류하였고, 데이터는 단백질 50g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표시했으며 단위는 kg CO²로 나타냈다.

논문에 따르면, 신선한 돼지고기의 CO² 배출량은 소고기와 양고기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달걀, 닭고기, 콩에 더 가까웠다. 통계분석 결과는 돼지고기는 가장 낮은 온실가스 배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연구를 통해 돼지고기는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